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65

헌당식을 목전에 두고

지진 재해로부터 2 년과 1 개월이 경과한 4 월 11 일에 오사카(大阪)에서 신칸센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결혼식이 두차례 있었고 추도예배가 두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 명을 초대한 콘서트도 했습니다. 준공되기 전부터 벌써 요긴하게 쓰인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1 개월 후에야 헌당식을 하게됩니다. 출석은 400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많은 분들이 교회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는지요? 지진 재해 속에서 태어난 이 교회는 반년분의 일을 벌써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날개 교회'의 그림책을 발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우선 지진 재해 중에 죽은 애견 파비의 지진 재해 체험 이야기가 그림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유랑의 교회'의 최종판으로서 '새로운 여행길'의 출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헌당식과 함께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지진 재해로부터 2 년 2 개월을 지내고 맞이하는 헌당식이 우선 한 단락을 매듭짓는 것이 되겠는지요?

블로그에 게재할 문장을 입력할 힘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4 월 30 일입니다. 지금 저는 신칸센으로 나고야(名古屋)에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번 달 11 일에 오사카(발)-후쿠오카(행) 신칸센에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짧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지친 숨이 턱에 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4 월 30 일, 신칸센에서)